

소프트웨어의 한글化

컴퓨터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란 용어도 그 중의 하나이다.

컴퓨터와 20여년간 가까이 인연을 맺어온 본인은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접하면 그 의미의 깊고 오묘함을 가끔 느끼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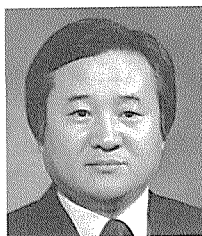
얼마전까지만 해도 「서비스는 無償으로 用役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져왔으나 지금은 有償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초기 컴퓨터가 도입될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드웨어는 有償이고 소프트웨어는 無償이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이것이 바뀐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컴퓨터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될 수록 갖가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됐다. 2000년대에는 과학기술자가 모두 소프트웨어개발에 전력해도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것인가. 몇년전 외국의 어느 저명인사로부터 北向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



황철봉

한국후지쯔 전무이사

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의 理致가 아닌가 여겨진다.

우리 東洋사람들은 보통 집을 南向으로 양지바른 곳에 짓는다. 그런데 이 외국인의 친구 아들 하나가 濠洲에 유학을 가서 送金을 아껴 北向집을 마련했다고 자랑삼아 부모님께 알려왔는데 이 소식을 들은 부모는 하필이면 北向집을 마련하고 자랑할 것이 못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南向집 사는데 돈이 부족했다면 돈을 보내줄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南半球의 북향집은 북반구에서의 남향집과 같은 것이었는데 느낌과 감각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소프트웨어란 이와 다를 것이 없다. 환경과 條件에 따라 視角이 달라지고 평가가 다르므로 외국에서 편리하게 쓰는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우리에게서는 불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컴퓨터가 도입, 활용되고 있지만 英文표현이 많아 하루속히 우리말로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편리하게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